

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창작하신
불후의 교전적명작

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

어제도 오늘도
여름에도 겨울에도
하루는 스물네시간
시간의 흐름에는
변함이 없건만

아버님 주무시는 방
책상우에 놓인 시계
무엇에 쫓기우는가
바늘은 급히도 달아나네

밤은 깊었으나 아직도
들어오시지 않는 아버님
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니
아버님 쉬실 시간
한초한초 줄어만 드는구나

안라까운 이 마음
그 누가 알아주랴
시계야 너라도 좀 더디게 가다오
아버님 쉬실 때만이라도
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...